

‘천안함 불똥’ 지방선거로 튀나

사고 원인 안 밝혀져 여야 선부른 대응 자제

군수뇌부·안보실패 책임 추궁 논란 불가피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원인미상의 사고로 침몰하자 정치권은 28일 초계함 침몰 사건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여야 각 정당은 침몰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데다 초계함 승조원 가운데 46명이 실종된 상황인 만큼 실종 장병들의 무사 구조를 기원하면서 정치적 대응을 삼가는 분위기다.

사고원인에 대한 선부른 예단이나 추측을 내놓는 것은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초계함 침몰사건이 어떤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 초계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다 내부폭발 또는 외부충격 등 사고원인에 따라 국가안보, 남북문제, 군수뇌부 책임 논란으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계함 침몰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초계함 인양이 필수적이거나 인양작업 자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일정에도 이례적 부담을 수 밖에 없다.

군당국과 전문가들은 사고해역의 환경을 감안할 경우 적어도 5월은 돼야 사고조사와

실종장병 수색을 끝내고 합정인양을 완료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초계함 사건이 정치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점 때문에 일단 초계

함 침몰 원인에 대해 선부른 예단이나 추측을 내놓기 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초계함 침몰사고가 대형 인명참사로 이어지고, 원인규명 작업이 장기화될 경우 지방선거 약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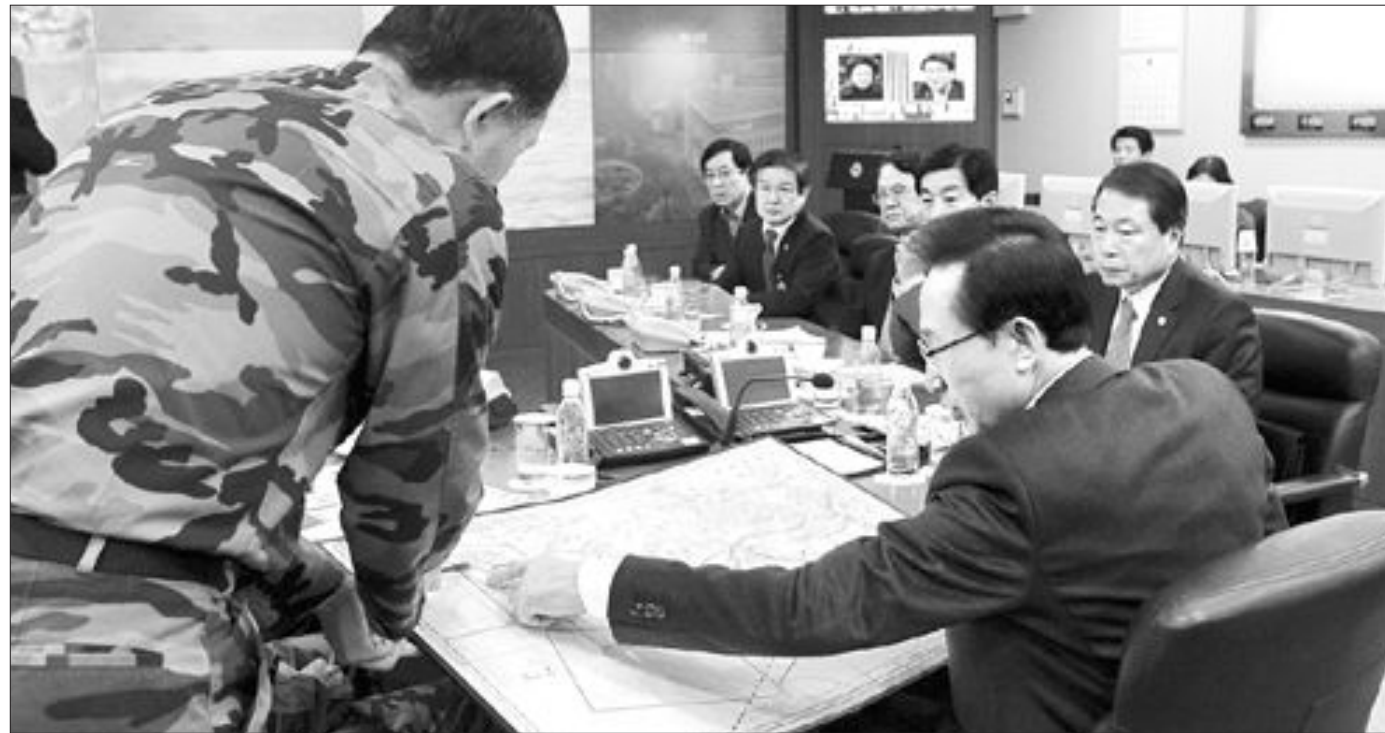
당 핵심 관계자는 “여하튼 지방선거에는 좋지 않은 이슈”라며 “현재로서는 정치적 논란을 벌이기보다 실종자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정치적 대응을 삼간 채 실종자

수색, 원인규명 등 사태 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책임론을 거론할 경우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사고원인이 나오는데도 안보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이상의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국회 차원 진상조사 해야” 선진당·진보신당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은 28일 서해상 초계함 침몰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의 경위와 진상에 대해 국민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선진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당 5역회의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군의 조사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정치권이 진상조사를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및 대책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오전 노회찬 대표 주재로 대책회의를 연 뒤 신속한 침몰 원인 규명

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위영 대변인은 긴급 주요당직자 회의 후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여야 모두 진상조사단 구성에 동의하면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 상황은 실종자 찾기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차적으로는 정부가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사고 경위와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군 특이동향 탐지못해” 사프 한미연합사령관

윌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28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북한군에 의한 어떠한 특이동향도 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청문회를 마치고 예정대로 전날 귀국한 샤프 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미군은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 “주한미군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전후로 대북 ‘SI(특별취급)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현재 북한 정세를 판단할 때 북측이 군사적 도발을 해서 실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샤프 사령관은 “주한미군 전체 장병을 대신해 천안함의 실종 장병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도드리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어떤 지원이 필요하진 결정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 계속 침묵 서해교전 때와 달라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것에 대해 북한은 사흘이 지난 28일 오후까지 침묵을 지켰다.

북한은 과거 서해상에서 벌어진 세 차례 교전 당시 ‘최장 5시간35분’ 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 차례 교전의 경우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이 즉시 알려진데 반해 이번에는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 즉, 선체에 구멍이 생긴 이유가 즉각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8일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가 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10일 오전 10시27분 NLL 이남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벌어진 대청해전 당

시 북한은 4시간53분 뒤인 오후 3시20분께 ‘최고사령부 보도’를 내고 “남한 해군이 우리측 해역에서 엄청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25분 NLL 연평도 부근에서 2차 연평해전이 터졌을 때 북한은 5시간35분 뒤인 오후 4시께 “남조선군이 서해상에서 우리 인민군 해군 경비함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청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자위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1999년 6월15일 오전 9시25분께 일어난 1차 연평해전 때는 5시간5분 뒤인 오후 2시30분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영해에서 인민군 해군 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청난 무장도발을 감행했다”고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대통령 “철저 조사, 한점 의혹없이 공개”

靑 사흘째 비상대기... 네번째 안보장관회의

청와대는 ‘천안함 침몰사고’ 발생 사흘째인 28일에도 전 직원이 긴장속에서 비상 대기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청와대 본관에서 네 번째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 사고 해역 수색에 착수한 해군 해안구조대(SSU)의 활동 경과 등을 보고받고 실종자 구명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한 점 의혹 없이 모두 다 공개하라”며 “의혹이 나올 소지

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선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 구조다. 실종자들이 살아 있다는 믿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장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지만 가능한 조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진행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많은 실종자가 나왔지만 해군의 총동맹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피

해가 안타깝지만 그나마 초기대응 잘 이뤄져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부터 관저에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으로부터 사고 조사 상황 등을 계속 보고받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으로부터 시시각각 올라오는 보고를 점검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느라 24시간 초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참모는 “현재 현장 조사가 진척되지 않아 (정보가) 더 나옴에 따라”면서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

나 신중하고 차분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정은찬 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계함 침몰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제도 밝혔듯이 모든 공직자들은 경건한 자세로 비상대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계함 침몰 사건은 앞으로 군이 중심이 돼 완벽히 수습할 것이며, 각 부처는 모든 협력과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이번 사고가 다른 분야에 파급되지 않도록 국정의 모든 분야를 세심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장병들과 가족 여러분께 총리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를 드린다”고 거듭 밝힌 뒤 “국민의 걱정을 꺼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밴드3 고시학원
http://kwangju.land3.co.kr

농산물 품질관리사
친환경 열방시대 최고의 자격증!

현재 개강중 **국비환급 100%**

시험일정	특 전
5월 9일 (법령, 유통론, 원예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의 등급판정(고소득 보장) 중요회, 지역농협 공채시 가산점 5점 공무원, 농업관련 직종 응시시 가산점 3점 관련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 채용시 채용업체에 자금지원

LAND 3 529-8838
합격의 새로운 이력 운동동 광광고 옆 심애신협 2층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 아파트론 - 無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